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청년 정착 온힘

전남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9개 대학 참여 20개 과정 개설

직무능력 교육 기업 취업 연계

전남도가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2023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을 운영한다.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에 참여한 도내 9개 대학은 30~50개 기업과 협약 후 20개의 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교육을 한 후 지역 기업에 취업을 연계한다. 사업 참여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모의면접, 취업 알선,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기업에

는 우수한 장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가족기업 협약과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학은 ▲동신대학교의 미래형에너지, 글로벌관광, 천연물 바이오의약품, 건강복지사, 농산어촌 지역개발 등 5개 사업단 ▲목포대학교의 조선해양, 글로벌 비즈니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청정에너지시스템 등 4개 사업단 ▲순천대의 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2개 사업단 ▲목포해양대 해양레저, 스마트해양정보통신기술 2개 사업단 ▲목포가톨릭대의 휴먼서비스 사업단 ▲순천제일대 제철화학 안전설비, 웰니스산업 2개 사업단 ▲정암대 보건의료서비스, 기업재난안전 관리 등 2개 사업단 ▲목포과학대 백세전문인력 양성 ▲도립대 글로벌 관광 서비스 과정 등이다.

전남도는 1개 과정당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비를 추가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바라는 학생은 각 대학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은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기업과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6년 6개 대학 6개 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대학 20개 과정(4년제 14개·2·3년제 6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4014명의 학생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완도서 바다 정화 활동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 7일 완도 신지면 송곡항 일원에서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 전남도의회, 완도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신지면 청년회,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어선 10척을 동원해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는 등 청정한 바다 살리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화활동에선 완도 신지면 항포구, 선착장, 물양장에 방치된 각종 양식 기지재와 겨울철 복서풍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밀려든 플라스틱류, 페스티코폼, 초목류 등 해양쓰레기 40t을 수거했다.

전남도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역별 자체 해양 쓰레기 제로화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청년회 등 지역 주민의 자발적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 지원 업무협약

한은·목포대 경제교육센터와

경제교육 캠프 운영 등 협력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지난 6일 오후 한국은행 목포본부, 목포대학교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와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금융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 ▲청소년기(학교밖청소년센터 등) 소속 청소년 금융 경제 교육 ▲청소년기관 종사자 경제 분야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등 금융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이다.

양미란 원장은 "청소년 시기에는 급변하는 세계 흐름을 알고, 글로벌 경제관념과 소비와 저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 경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상반기에 금융 경제 교육 역량 강화연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학교, 청소년기관에 방문하여 청소년 금융경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봄철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 총력

낚싯배 구명·소방시설 등 점검

전남도가 따뜻한 날씨로 어업·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5월 19일까지 이뤄진다.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구명, 기관, 전기, 소방, 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한다.

특히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조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끼임, 타격,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도 철저히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신장비 조난버튼(SOS) 사용법과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 착용 지도를 함께하고 낚시어선은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소화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 이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전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어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지원' 전국 최다 선정

문화재청 공모 신청 6개 모두 선정

전남도는 지역의 고유한 무형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전승 토대 마련을 위한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6개가 선정됐다.

선정 사업은 ▲전통 민간 장교 복원 타당성 사업 용역(담양) ▲전통 제다의 정체성 정립 및 전통 야생다원 기반 지속가능한 전통 차문화 전승 교육(곡성)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온돌한마당·전년의 역사 보성 제다(보성) ▲강진 월출산 차문화 전승공동체의 활성화와 제다 무형

유산의 가치 확산(강진) ▲함께 불러요 우리 아리랑(진도) 등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도입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동체 16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공동체 종목의 전승 활성화를 통해 무형유산 가치 확산 및 전승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개 종목은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 생활, 옷 놀이다.

전남도는 16개 사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서 신청한 6개 사업 모두가 결실을 봐 전승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를 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지역 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도민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무형유산의 보존과 육성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승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신청 19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재능 있는 미래 인재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을 19일까지 확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이다. 전남사랑 도민증이 있는 경우의 대학생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713명이다. 지난해보다 171명이 늘었다. 성적 우수·봉사활동·출향 향우 자녀 대상 아름다운 장학생 118명, 사회적 배려 계층·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상 희망나래 장학생 315명, 지역 및 수혜자 특별 지정 장학

생 280명을 선발해 총 9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직업체 고등학교 3학년의 전남 정착을 위한 장학금 신설에 이어 올해부터 도내 대학 졸업반 전남 취업 장려 장학금을 신설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50만원을 지원하고 전남에 취업하면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또 지방이전 공기업과 협력해 도내 이공계 대학생 139명에게 장학금 1억85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신설했다. 이밖에 사회적 배려계층과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중학생 장학금을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유현석 기자 chadol@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